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 13, 33-35)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 지거 괴더

[제1독서] 사도행전 14,21ㄴ-27

[화답송] 시편 145(144),8-9.10-11.12-13ㄴ
(◎ 1 참조)

◎ **저의 임금인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당신의 위업과 그 나라의 존귀한 영광, 사람들에게
알리나이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무궁한 나라,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치나이다. ◎

[제2독서] 요한 묵시록 21,1-5ㄴ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복음] 요한 13,31-33ㄴ,34-35

[성가 안내]

- 입당성가: [135]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 예수
- 봉헌성가: [220] 생활한 제물 [511] 미약하온 우리 제물
- 성체성가: [170] 자애로운 예수 [165] 주의 잔치
- 파견성가: [138] 만왕의 왕



Father Chung's Homily

“서로 사랑하여라!”

“You should love one another.”

When it was almost the time that Jesus would leave the world and return to the Father, he said to his disciples, “Now is the Son of Man glorified, and God is glorified in him.” Then, he gave them the new commandment: “As I have loved you, so you also should love one another.” He added “As I have loved you” to the traditional commandment in the Old Testament of “You should love one another.”

Jesus loved His disciples with his never ending love. He loved them even though they did not understand him and even betrayed Him. Out of his incessant love, he always waited for them to return. His love is different from that of human beings. Where did that love come from? It was from the love of God.

When a Pharisee asked Jesus about the greatest commandment in the law, Jesus talked about ‘love for God’ and ‘love for neighbor’ as the answer. Citing Deuteronomy, he said,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He himself loved the Father with all his being.

Paul the Apostle praised Jesus for how much he loved and obeyed the Father: “he humbled himself, becoming obedient to death, even death on a cross.” Paul also praised, “Because of this, God greatly exalted him and bestowed on him the name that is above every name.”

The Lord taught us about how universal his love is: “Let anyone who thirsts come to me and drink.” His love is open to everyone. He invites everyone to his love. He says that we shall love each other as he loves us. The most beautiful thing in the world is the love that Jesus teaches us.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시자 제자들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인 당신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 하느님께서도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구약에서 이제까지의 계명은 주님께서 레위기 말씀(19,18)을 인용하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율법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스승의 마음으로 변함없이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스승의 참된 모습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스승의 죽음 앞에 도망가거나 또 스승을 부인하더라도 주님께서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제자들을 기다리시며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한결같은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릅니다. 그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느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율법교사의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에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하느님 사랑이 바탕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항상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신명기 말씀(6,5)을 인용하시며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마태 22,37)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몸소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느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교우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느님께 대한 순명으로 극진한 사랑을 드러내셨음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필리 2,8) 그래서 바오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필리 2,9)라고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님께서서는 구약의 배타적이고 소극적인 사랑을 넘어 보편적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축제의 마지막 날에 사람들에게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서 와서 마셔라.”(요한 7,37)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하느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며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하나로 만들어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입니다.

복음 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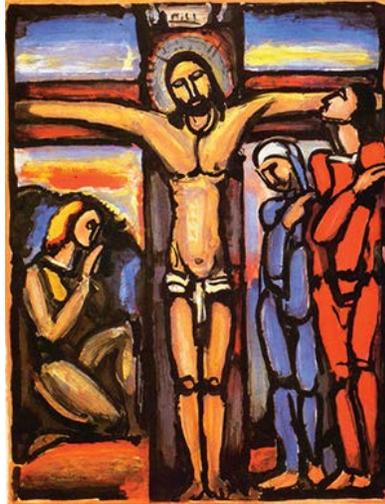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요한 13,34)

십자가 위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예수님의 큰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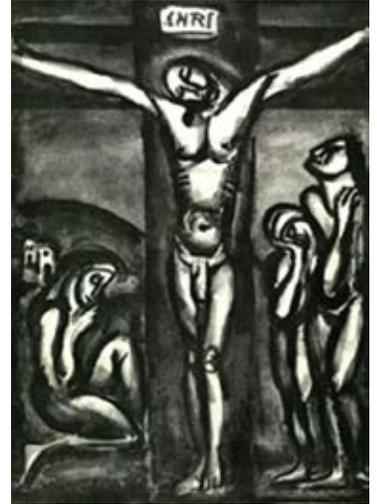
20세기 최고의 종교화가인 조르즈 루오(Georges Rouault, 1871~1958)는 한 평생 성화를 그렸다. 그는 수많은 성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삭막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강하게 말했다. 동판화 '십자가의 그리스도'(1936년)는 루오가 남긴 빼어난 성화 가운데 한 점이다.

이 작품에서 비록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지만 그분의 몸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작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한 십자가 안에서 동시에 표현했다. 예수께서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돌아가셨지만 부활해 여전히 이 세상의 구세주로서 우리와 함께 머물고 계심을 알려준다.

오른쪽에는 예수님을 충실히 따랐던 두 사람이 그분의 가르침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중이다. 그리고 왼쪽에는 성모 마리아가 무릎을 꿇고서 예수님의 죽음 안에 담긴 구원의 의미를 생각하는 듯이 보인다. 십자가 뒤의 하늘은 부활을 상징하는 새벽빛으로 물들어 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조르즈 루오(1871~1958) 1936년, 동판화, 루오 재단, 파리, 프랑스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십시오〉, 조르즈 루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늘 우리들 곁에 있듯이 주님의 큰 사랑 또한 우리들 가까이에 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비슷한 구도의 작품은 루오가 1922~1927년에 발행한 '미세레레' 판화 연작에서 찾을 수 있다. 총 58점으로 제작된 '미세레레'는 작가가 제1차 세계대전을 체험하면서 인간의 비참과 하느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가운데 탄생된 작품이다. 이 작품의 31번째 판화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같은 구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작품의 제목은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십시오'이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최후 만찬 중에 사랑의 새 계명을 주시면서 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 13,34-35) 예수께서는 공생활 중에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그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사랑을 보여주셨다.

우리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큰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모든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셨다. 주님의 십자가에는 무죄한

이를 못 박은 인간의 죄악과 그 죄악보다 더 큰 그분의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다. 예수께서는 돌아가시면서도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 멀리 있는 사람까지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을 당부하셨다.

주일이나 평일미사가 끝나면 신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간다. 모두가 떠나도 떠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는 분은 오로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뿐이시다. 텅 빈 성당의 텅 빈 신자석에 앉아 있으면 비로소 커다란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고 그곳에 매달린 채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과 눈을 마주치게 된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면서 당신처럼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모든 이를 안아주는 하느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듯하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늘 우리들 곁에 있듯이 주님의 큰 사랑 또한 우리들 가까이에 있다.** 우리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정용모 신부의 성화 해설 중)

이 주일의 성경 퀴즈

요한 복음(13,31-33~34-35)

동그라미 속에 채우며
오늘의 복음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경 퀴즈 정답: 4면

유다가 방에서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 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애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을 준다. 서로 ○○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상회



지난 17일(일) 70세 이상의 형제 모임인 하상회는 회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교실에서 4월 월례회를 했다. “잘 웃고 늘 감사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정인준(파트리치오) 주임 신부의 말씀과 강복에 이어 김 아네스 자매의 ‘홈 케어’ 안내 및 강요한 형제의 ‘유당 불내증’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회원들은 유익한 정보 교환과 나눔 시간을 갖고 빙고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안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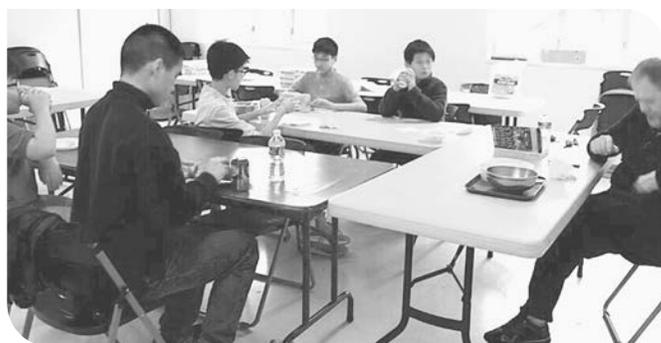
65세 이상의 자매 모임인 안사회는 지난 17일(일) 85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4월 정기 모임을 가졌다. 묵주기도를 시작으로 “자녀들에게 힘과 빛이 되도록 성실한 삶을 살고 항상 웃고 기뻐하라”는 정인준 주임 신부의 말씀과 강복에 이어 3월과 4월에 생일을 맞이한 회원들을 축하하며 즐거운 친교 시간을 가졌다.

베드로회 모임



40대 교우 모임인 베드로회는 지난 17일(일) 회원 및 자녀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원경(대건 안드레아) 보좌 신부의 말씀과 강복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회장 김상욱(안토니오) 형제는 “성당 내 여러 단체로부터 우리 베드로회의 봉사활동에 대해 칭찬을 많이 받는다”며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5월의 ‘장터 한마당’과 6월의 ‘효도 한마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베드로회의 역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회원들은 처음 나온 최영준(힐라리오), 신상희(글라리아) 가정을 환영하고 나눔과 친교를 가졌다.

Quo Vadis (성소자 모임)



성소주일인 지난 17일(일) 친교실에서 성소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정기 모임을 가졌다. 지도 교사 조 (Joe)는 “성소는 하느님께서 불러 특별한 목적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거룩한 부르심’이며, 성소자 모임에 나오거나 프란치스코회, 베네딕토회 등의 수도원을 방문하여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자신에 맞는 성소를 찾는 등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사제나 수도자가 되려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본당의 성소 후원회에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며 “우리 모두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고 전하는 이들이 되자”고 다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 *Amoris Laetitia*

상처받은 가정을 하느님 자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목적 태도 변화 촉구 - 세계 교회 가정 사목의 나침반 역할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 이 2016년 4월 8일(금) 로마 시각 낮 12시에 공개되었다. ‘가정에서의 사랑에 관하여’ (on Love in the Family)라는 부제가 붙어 있으며, 서문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황이 권고문에 최종 서명한 반포일은 성 요셉 대축일인 2016년 3월 19일이다. 전문은 8일 바티칸에서 이탈리아어와 영어 등 6개 언어로 공개되었다. 한국어판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김희중 대주교)가 번역해 단행본으로 출판할 예정이다.

<사랑의 기쁨> 본문은 “가정에서 경험하는 사랑의 기쁨은 또한 교회의 기쁨”이라는 말로 시작된다. 권고문은 ▶성경에 묘사된 가정생활 ▶오늘날 가정의 현실과 도전 ▶가정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부부의 사랑 ▶부모와 자녀, 형제, 노인, 친척과 친구 등 다양한 관계로 열매 맺는 가정의 사랑 ▶가정에 대한 사목적 관점들 ▶윤리적 신학적 성적 측면을 포함하는 자녀 교육 ▶약하고 고통받는 교회 구성원들에 대한 자비와 사목적 식별의 필요성 ▶혼인과 가정의 영성 등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용기를 잃거나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사랑과 친교를 추구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기 바란다고 독자들을

격려하며, 세계 교회가 가정 시노드를 준비하며 바쳤던 ‘성가정에 바치는 기도’로 권고문을 끝맺는다.

교황은 <사랑의 기쁨>에서 가정생활에 미치는 사회적 이슈, 즉 이혼 재혼 신자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발표된 어떤 내용보다 분명한 포용의 메시지를 전했다. 교황은 권고에서 지금까지 영성체가 금지돼 온 이혼신자, 재혼신자에게도 자비의 올리브 가지를 건네라고 말하고, 그들은 교회 생활에서 부정적으로 판단되거나 외면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엄격한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가정생활의 기쁨을 복돋우고, 상처받은 가정을 하느님 자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목적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교황의 권고가 이혼과 재혼 신자도 영성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보도했다. 교황청은 함께 배포한 설명 자료를 통해 교황 권고의 핵심 개념은 ‘통합’이며,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의 모습을 교회가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이 문헌은 교황이 가정 사목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한 가르침으로, 향후 전 세계 교회 가정 사목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가톨릭, 신자 수 늘지만 내실은 하락

주교회의가 매년 발표하는 한국 교회 통계는 2015년 신자 수나 복음화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신앙생활의 내실을 보여주는 각종 성사 참여율은 계속 떨어지는 현상을 거듭 확인시켜 주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 한국 교회 신자는 565만 5504명으로 전년 대비 1.7%(9만 4533명) 증가했다. 이는 총인구 5천 200여만 명의 10.7%를 차지한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총인구 대비 신자 비율(복음화율)은 소폭이나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했던 2014년 5.0%의 증가율을 보였던 영세자 수는 2015년에는 다시 6.9% 감소했다. 2014년의 영세자 증가는 교황 방한의 영향을 받은 일시적 현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매년 1%p가량 감소해 오던 주일미사 참여율이 더는 떨어지지 않고 2014년과 같은 20.7%를 기록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신자들의 신앙 내실을 보여주는 지표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고해성사는 6.0%, 첫영성체는 1.8%, 견진성사는 0.9% 감소했다. (평화신문)

본당 교우의 글

양형 영성체를 모시고서

최방지(소피아)

저는 유아 영세를 받은지 70여년이 넘는 평범한 신자입니다. 나름대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오늘 아침 미사에 양형 영성체를 처음으로 모셨습니다. 양형 영성체는 축성된 성체와 성혈을 동시에 모시는 거룩한 예식으로 평상시 주일 미사와 평일 미사 때 성체 분배자와 미사 해설자, 성가 지휘자, 반주자만 모셔서 많이 부러워 했었는데 오늘 아침미사에 처음으로 양형 영성체를 모시는 행운을 주신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같이 처음 접하는 신자들에게 사전에 양형 영성체에 대한 교육을 그날 아침 한번 더 시켰더라면 실수하는 신자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드는군요. 주일 미사에는 교우분들이 많아 어쩔수 없지만 새벽 평일 미사에 나오시는 열심인 교우분들에게 양형 영성체를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양형 영성체를 모신 감격 때문인지 오늘은 유난히 더 신부님이 젊어 보이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CCD What happened in our CCD?

JR. BASH 2016



Eric 😊

I loved the Homily, the free throw contest, the games and the dodgeball Tournament.



Youngjin (Confirmation class) 😊
Today, April 16th, I had so much fun with friends and teachers. We did a lot of activities such as dodge ball, free throw basketball, rock climbing and many more! We played together and tried to know each other at the same time. It was really fun that we will never forget.

Nicole 😊

I felt very happy and joyful during the Popple performance.

Isabell 😊

Enjoyed eating a lot of chips, pizza and Rita's Italian ice cream!

Adrian 😊

I loved the Rock Band and the rock climbing.

Stephen 😊

The Bash was amazing. I especially had fun meeting new friends from other parishes.

Sojung, Alexis, Sohee, Caroline 😊

My favorite part was the photo booth with my friends!!!



Appreciation tea party



CCD Vice principal Mrs. Boyle invited 30 parents (room moms and volunteers) for an appreciation tea party last Sunday to thank them for their effort and accomplishment in organizing the gym activities throughout the 2015 school year.

WorkCamp 2016



15 participants, Camp leaders and Contractors gathered and enjoyed their meeting and lunch together for the first time last Sunday, April 17. Special thanks to Father Seong, Mr. Lim and Mrs. Kim for all their leadership and support.

ANNOUNCEMENTS

1 **CCD Open Class (For the 2nd semester)**

- **When** : April 24 (10 am to 11:15 am)

2 **St. Paul Chung Sunday School hosts Annual Conference**

- **When** : May 4, 2016 (Wed 8pm-9:30pm)
- **Where** : Hasang building (TBA)

3 **First Communion Class Workshop**

- **When** : May 7, 2016 (Sat 2pm-4pm)
- **Where** : Hasang building

1 4 복음서 필사 노트 전시

4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복음) 필사노트를 9월 1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쓴 필사 노트는 본당 공동체 창설 30주년 기념일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3년(1차)과 2015년(2차)에 성경 통독을 마친 신자들은 사무실에 마련된 양식서에 명단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 요한회 친교 행사

• 일시: 4월 24일 (일) 오후 6시 (B-1, 2)

3 K of C 정기모임

• 일시: 4월 24일 (일) 오전 11:30 (B-1, 2)

4 유아세례

• 일시: 4월 24일 (일) 오후 3시, 성당

5 교육부 영성 세미나 (동영상)

• 일시: 4월 24일 오전 11:30 - 오후 1시 (친교실 A-1,2)
 • 주제: 차동업 신부님의 희망 대특강 / 무지개 원리(절대 희망)

6 요한회 친선 골프대회

• 일시: 4월 24일 (일) 오후 1시
 • 장소: 사우스라이딩 골프클럽, 대회 후 성당 친교실에서 식사 (오후 6시)
 • 문의: 윤봉근 도미니코 (703) 307-7939

7 주일학교 CCD 공개 수업

• 2학기 공개수업에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4월 24일 (일) 오전 10시 - 11시 15분

8 파티마 세계 사도직 가정 순례

• 순례 신청: 4월 24일, 오전 10시 미사 후 친교실
 • 순례 기간: 2016년 5월 1일 (일) ~ 10월 30일 (일)
 • 문의: 김만식 (703) 403-1185

9 구역 임원 교육

• 일시: 5월 1일 (일) 오전 11:30 (B-1, 2)

10 M.E 미 동북부 제71차 주말 부부 모임

• 미 동북부 M.E에서 주말 부부 모임을 초대합니다.
 • 접수: 친교실 미사 후
 • 일시: 5월 28일 (토) 오후 7시 - 5월 30일 (월) 오후 5시
 • 장소: Wyndham Garden Hotel Newark NJ
 • 문의: 김영술 김생금 부부 (703) 477-2446, 노응홍 노월승 부부 (973)255-7344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4월 24일(일)	부활 제5주일	요한회 친교행사(18:00, B-1,2), K of C(11:30, B-1,2), 유아세례(15:00, 성당)
25일(월)	성 마르코 복음사가 축일	아침 미사(6:00, 성당)
26일(화)	부활 제5주간 화요일	레지오 마리아(20:00, 친교실), 성령기도회(20:00, 친교실), 하상성인학교(9:30, 하상관, 친교실), 예비자 교리(20:00)
27일(수)	부활 제5주간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9:30, 친교실), 성경학교(20:00)
28일(목)	부활 제5주간 목요일	아침 미사(6:00, 성당)
29일(금)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 동정 학자 기념일	하상 성인학교(9:30, 하상관, 친교실)
30일(토)	부활 제5주간 토요일	아침 미사(7:00, 성당), 레지오 마리아(9:30, 친교실), 하상한국학교(하상관), M.E 봉사자모임
5월 1일(일)	부활 제6주일	구역임원교육(11:30, B-1,2), 청소년 사도회(13:00, B-3,4) 성모회 임원회의(13:00, B1,2), 꾸리실료 환영식(16:00, 친교실)

11 불우 이웃 돕기 야드세일

• 일정: 5월 21일 (토), 5월 22일 (일)
 • 물품 기준: 10시 미사 후, 친교실
 • 문의: 강동훈 요한 (703) 585-2700

12 2016년 아시아 태평양계 성모 성지순례

• 일시: 5월 7일 (토) 오전 11시 성당에서 출발
 • 장소: 워싱턴 D.C National Shrine
 • 참가 등록: 친교실 (선착순), 차편/점심 제공
 • 문의: 허진 (703) 376-1372

13 성인 견진성사 신청

• 서류 접수: 5월 1일 (일)까지
 • 준비 서류: 견진 신청서, 영세자 증서 & 혼례증서
 • 장소: 성당 입구 안내 데스크
 • 문의: 윤재원 베드로 (215) 510-7513

14 알링턴교구 다민족 공동체 음악회

• 음악회 일시: 5월 21일 (토) 오후 5시
 • 장소: Bishop Ireton High School (201 Cambridge Rd, Alexandria)
 • 문의: 노혜란 (301) 335-2532
 • 합창 연습: 매주 금요일 8시, 성가대 연습실
 • 여러 나라 언어로 부르는 다민족 음악회에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5 주일 오전 8시 미사 반주자

• 8시 미사 반주자를 모집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의: 김성현 로베르도 (703) 569-7840
 정재민 미카엘 (703) 989-6283

2016년 부활 제대꽃 봉헌자 명단

부활 제대 꽃을 봉헌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변윤구, 차도미나, 이태욱, 강영호, 김영숙, 이스텔라, 최혜수, 김기수, 이정화, 한경옥, 양혜라, 강윤주, 홍의훈, 박상훈, 민일성, 한기근, 조성수, 안순상, 김창경, 황일용, 김인기, 박춘선, 조명규, 고대현, 박상철, 송상희, 김용희, 김세희, 김호찬, 김성배, 박호철, 윤비비안나, 정형순, 김수현, 전수일, 유재남, 이도로테아, 이상길, 이규섭, 권정미, 임정숙, 강승희, 김영식, 정용진, 은기권, 전원길, 민금선, 권이나시오, 정우각, 임용근, 권영식, 박도원, 김형기, 김상애, 이일우, 조영인, 강세원, 윤상, 윤모니카, 윤조희, 윤조현, 김현진, 양치모, 두란성희, 이계성, 윤춘화, 권영수, 이루시아, 김유스티나, 김홍자, 유기영, 박장오, 노명숙, 황원근, 최환용, 박신현, 조형진, 박기령, 이규섭, 김문경, 조동훈, 김용구, 박찬현, 김안나, 김남식, 안기창, 박노덕, 오승영, 박우현, 백명수, 노응홍, 안상용, 이혜란, 오복미, 김방한, 김은영, 김길태, 정우석, 안종윤, 이요한, 신범숙, 배대륜 가족, 배윤희 가족, 배석봉 가족, 정맹금

총 \$2,970.00

*** 2차 헌금 ***

오늘은 Catholic Home Missions Appeal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상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4월 28일(목) 오후 9시~11시

- **오늘의 양식:** 성 정 바오로 성당 주일 강론
- **가톨릭 소식:** 교황청, 세계, 한국의 주요 가톨릭 소식 종합
- **행복 특강:** 신앙의 눈으로 행복의 비결을 듣는 황창연 신부의 특강(2편)
- **인물 에세이:** 1970-80년대 인기 가곡 '비옥'을 부른 '메조 소프라노 김창자 아네스'의 인생여행 제2편

4월 29일(금) 오후 10시~11시

- **성경교실:** 정인준 신부의 성경 교실 / 마르코 복음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6년 4월 17일 (부활 제4주일)

주일헌금	\$7,827.46
교무금	\$12,895.00
교무금(신용카드)	\$2,580.00
특별헌금	\$380.00
2차 헌금	\$0.00
합계	\$23,682.46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전례 및 청소 담당

4월 24일	버크 4
5월 1일	애난데일 1

기도해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윤규희(발바라), Thomas Byrne, 홍종범(시몬), 한중분(루시아), 정맹금(데레사),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환(마리아), 이강영(테오도로), 김태명(시몬),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토), 송영하(요한)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윤백침(프란치스코), 윤시훈(아우구스티),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임현석(아비또), 손병기(펠릭스), 장동건(스테파노), 장동호(다니엘), 주기환(필립), 최홍집(앤토니), 전성호(세례자 요한),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최용성(프란치스코), 고미엘(마카렐라), 이솔(루시아), 에스터 정(세레나), 정수지(요안나), 권범수(요한)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훈인공시

- 최정길 씨 자: 최 Stephen Jae 스테파노
- 김기철 씨 자: 김보휘 벨라뫼따
- 일시: 2016년 5월 14일 (토) 오후 4시
- 장소: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 이 두 사람이 훈인해서는 안될 어떤 사정을 아시는 분은 주임사제나 교구집권자에게 알려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Pohanka Acura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허진 변호사 Law Office Jason Huh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18-5404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이불, 옷,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 엘리사벳 703-508-774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Youngs Health Care Inc.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주택융자, 채용자 EverBank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문스 자동차 정비 Chantilly/South Riding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안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맛사지와 한방나라 이역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연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스카이 학원 전 학년 전문 SAT, 영어, 수학 썸머 등록 중, 조기등록 혜택 김영란 (아네스) 703-867-1144	재노 오 부동산 Washington New Star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Susan Interior 커튼, 블라인드 김수산나 703-981-4296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용엽 (요한) 703-451-3322	케어피플 & 호스피스 간병사, 방문간호, 물리치료 이선애 (엘리사벳) (O) 571-297-4747 (C) 240-413-0365	COLUMBIA COLLEGE 연방정부 학비보조 가능 admissions@ccd.edu 703-206-0508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하얀나무치과 www.whi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F teck connection, LLC POS(cash register), CCTV, Network, Bank Card Services 마르티노 손 540-429-1399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운 (마르코) 센터빌, 찬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LED Lights 매장창문, 건물라인 쇼케이스 및 진열장 쿨러, 간판, 형광등 설치·판매 773-931-1238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Springfield TOYOTA New / Used Cars 조상준(유스티노) 703-269-1400 Cell. 703-909-0688	마태오 흥 종합보험 자동차, 집, 사업체, 은퇴연금 장기간호 / 생명 / 건강보험 703-969-8956 703-969-8954	신디 리 부동산 텔리 전문 사업체 이 루시아 703-338-0008
중미반점 (애난데일 예촌과 WELLS FARGO BANK사이) 임형석(가브리엘) 703-658-2030	Penta Olympic Fencing Club 펜싱 클럽 이영찬(베드로) 703-207-1059 Cell. 703-801-3924	ASSA 종합보험 최 클라라 생명, 건강, 비즈니스 자동차, 주택 703-649-211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Greenway Funding 주택융자, 채용자 제이슨 리 703-851-5805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Kitchen, Deck Sunroom 해성건축 김명수 (요셉) 571-477-5996	확신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현대 부동산 이창호(어거스틴) 571-455-0768	J C Provision 즉석 도정미 판매(당일 도정) 현미, 5분도미, 백미 703-625-1007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주일 저녁 6시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주)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8개월)
 · 주일 : 11시 40분 (하상관)
 · 화요일 : 오후 8시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정인준 (파트리치오) | 보좌신부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 사도회장 이용현 (요셉)